



2012 엑스포 여수로... 불붙은 유치전

2 해외 네트워크 풀가동하라

정부·기업·재외동포 3각체제 구축을

박람회 유치전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총력전이다.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98개 세계 박람회사(국(BIE) 회원국 대표의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체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도 권역별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력 외교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재외동포사회를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것이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두 경쟁국가에 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현대와 삼성, LG 등 지명도 높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사회가 하나로 뭉치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막강한 정보력과 맨 파워를 지닌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이 정부의 외교라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미 현대는 2012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들 대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 다져진 국제협상 능력이다. 북미와 중남미권은 25개 국가가 BIE 회원국이지만 이들 대륙에서는 박람회 유치 국가가 없어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미와 중남미 권역을 주된 득표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이같은 실정에서 현대나 삼성이 경제개발도상국에 있는 중남미 국가 및 현지기업 등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지지세를 확산할 수 있다. 또 3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에 다수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체의 현지조직망을 적극 활용한다면 적지에서 우군을 얻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세계박람회사(국(BIE) 이사단 초청 환영 오찬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사단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해서는 외교라인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노력도 절실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모로코·폴란드에 앞선 대외 역량 활용해야 KOTRA 조직망·재외 호남향우회도 큰 힘

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난 2010년 박람회 유치전 당시에도 크게 기여했던 KOTRA가 다시 한 번 힘을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경제개발 단계에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에 거미줄같은 통상조직을 구축한 바 있다. KOTRA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 박람회 유치 전령사로 다시 댈다면 외교 공관과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3각체제 형성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두 말할 나위 없다. 최근 진행된 우리나라의 국제화 물결에 따라 전 세계에는 한인사회가 촘촘하게 조직돼 있다. 재외동포들은 거주 국가에서 생업을 통해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언제라도 박람회 유치의 첨병으로 나설 수 있다.

최근 세계 '한상(韓商)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임재완 전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전 세계의 오지까지 진출해 있

는 한국인과 기업인을 잘 묶는다면 2012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남향우회 등 지역출신 재외인사들의 애환심 발휘도 박람회 유치에 절실하다. 고향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를 위해 향우들이 적극 나선다면 그만큼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광수 전남도 엑스포지원관은 "정부의 공식 외교루트와 대기업의 현지 조직망이 가세하면 상대적으로 대외 역량이 떨어지는 모로코나 폴란드에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앞으로 재외향우회 조직에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협조를 요청해 총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무안·신안, 후보들 장터·섬지역 돌며 지지 호소

광주 서구 선관위 구의원 후보 등 2명 검찰 고발

4·25 재보선 현장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16일 5일장이 열린 무안 일요일과 망운면에서 잇따라 거리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홍업 후보는 중앙선거지원단장인 이낙연 의원의 지원 아래 열린 유세에서 "무안기업도시 활성화와 신안지역 연도·연륙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 국비 예산 확보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부인인 신선연씨도 신안 섬지역을 돌며 득표 활동을 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도 일로 장터에서 유세를 갖고 낙후지역 개발 등 자신의 공약사업들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는 지원에 나선 원희룡 의원과 함께 일로 우시장에서 유세를 벌인 뒤 신안 임자도를 찾아 표발을 다졌다. 원 의원은 유세에서 "강 후보를 여의도로 보내주면 호남과 한나라당의 가고 역할을 하는 대표 주자로 키우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선과 관련, "아파트 등에 명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광주시 서구 구의원 A후보 관계자와 B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 선거운동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이를 통한 자원봉사자 14명을 동원,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A후보의 명함 4천여매를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후보는 서구 관내 아파트 곳곳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김홍업, 무소속 이재현,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 목포KBS에서 녹화해 18일 오전 10시 방송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방·흑색선전과 사조적 이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이다.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안경 및 두드레와 MP3 등 기념품을 선물하는 투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j.election.go.kr)에 접속,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업도시 성공·낙후지역 개발 한 목소리

무안·신안 보선 공약들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낙후지역 개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 대책 수립 등을 한 목소리로 내세우며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자신이 책임자임을 역설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안·신안·목포를 묶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과 국내·외 자본 투자를 적극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신안지역 다이아몬드 군도 개발을 위해 해양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한·미FTA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농촌지원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홍업 후보=깨끗한 선거와 민주평화세력 통합 등 정치적 약속에 치

중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규를 실현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세력이 하나로 통합해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서남권 물류거점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기 및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한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미FTA협상 타결과 관련 농업비중이 큰 무안·신안지역은 결정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높으므로 국회 비준거부 등 반대투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 후보 이색공약=무소속 강성현 후보는 3천만원 이하의 최소 선거비용 사용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비전센터' 설립을, 무소속 유경일 후보는 압해항의 컨테이너항 육성, 무소속 서용석 후보는 '서남권 IT교육 중심지 육성', 무소속 박세준 후보는 '특목고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각각 내걸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송재구문화도시위원장 "인사권자 결정 따르겠다"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위원장이 청와대의 사퇴 중용(본보 16일자 1면)과 관련, 16일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광주시민들의 여망과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담아 추진되도록 노력했으나 문광부와 사업 추진 방향이 상이해 정부 측에서 불편해 한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위원장

직을 해촉한다면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사퇴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자신 사퇴를 촉구하면서 간접적으로 해촉 의사를 비친 전화를 받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사퇴를 반대하고 있고, (나) 스스로 떳떳

하기 때문에 결코 직접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가 자신을 해촉한다면 능력있는 인사를 선임해 주길 바라며, 자신은 개인 자격으로라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말 이영진 전 문화도시 조성추진기획단 본부장으로부터 사표를 받

아 처리하면서 송 위원장의 사표도 동반 처리할 계획이었다.

청와대는 송 위원장이 지난 해 10월 23일 취임 이후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한 문광부와 대립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기 발언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문화전당 랜드마크와 기능 보완, 위원회의 집행기는 강화 등 문광부와 사업추진 방향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www.segistar.co.kr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무료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십시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

Table with 3 columns: Location, Phone Number, and Branch Name. Includes Seoul, Gyeonggi, and other regional branches.

전국점망: 서울 서문동 02)2276-0597, 서울 강남구 02)3477-5110, 서울 동대문구 02)733-0220, 수원 02)321-2288, 인천 02)261-5110, 부산 051)251-4477, 대구 053)251-4440, 광주 061)251-4440, 대전 042)251-4440, 울산 052)251-4440, 세종 031)251-4440, 충청 041)251-4440, 전북 063)251-4440, 전남 061)251-4440, 경북 054)251-4440, 경남 051)251-4440, 제주 064)251-4440